

연구원의 기술축적을 위해 다방면으로 투자



이 유 용
〈방재시험소 소장〉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부터 불의 역사는 시작되었으며, 이때부터 우리 인류는 불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현대문명은 불을 얼마나 잘 다루고 보다 과학적으로 실생활에 응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불은 이로운 면이 있는 반면에 조금만 방심해도 우리를 큰 재앙으로 몰아 넣곤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선진 외국에서는 불로 부터의 재난을 방지하고자 이미 1세기 전 부터 화재예방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방재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없이 외국의 기준들을 그대로 모방하여 활용 해 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여 왔습니다. 이제 뒤늦게나마 민간기관으로 방재 시험소가 설립되어 업무를 시작한지 1년여 동안 우리 시험소는 주위의 많은 격려를 받아 왔으며, 정상궤도에 오르기 위한 기술 축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의 국제간 경쟁은 과학기술의 경쟁이며, 새로운 기술혁명과 새로운 테크노로지 개발이 한 나라 경제의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혁명이나 하이테크 없이는 모든면에서 발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시험소에서는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UL과 일본의 건축자재 및 소방 관련 시험연구 기관등과 많은 기술교류를 하고 있으며, 각 연구원의 기술축적을 위해 다방면으로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간에 수행해온 시험연구 결과 및 자료들을 정리하여 “방재기술”지 창간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방재기술 동향과 시험연구 결과 등을 이 지면을 통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아직 경력이 일천하여 수록내용 등에 부족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관련기관, 학계, 시험연구소 등 주위 여러분들의 지도속에 보다 더 알차고 수준높은 내용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전력을 다 할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